

전남도, 청년 창업농업인 육성 사업 '본격화'

후계농업경영인 등 역대 최다 선발
기술·경영교육 등 안정 정착 지원
소득창출 등 성장·정착 단계별 추진

전남도가 미래 전남 농업을 이끌 '청년 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과 '후계농업경영인' 선발을 완료, 기술·경영교육 및 컨설팅 등 안정적 정착을 위한 본격 지원에 나선다.

4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청년후계농 740명, 후계농 134명 등 총 874명의 역대

최다 인원을 선발했다. 지난해보다 126명 늘어난 규모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증가했다.

청년후계농 사업 대상은 전남에 주소를 둔 18~39세 청년으로,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이며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다.

대상자에게는 3년 내 월 최대 110만 원의 영농정착지원금과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농지은행 농지 임대, 영농기술교육 등을 지원한다.

나주에서 배를 재배하며 올해 청년 후계농으로 선정된 강모씨는 사업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

강씨는 "안정적 수익창출을 위해 작목 전환, 품종 다양화 등 새로운 도전에 어려움을 있었다"며 "체계적 영농교육과 용자를 통한 선별장·저장창고 설치와 다양한 과수재배 등을 통해 안정적 소득 창출과 농촌 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후계농업경영인은 18~49세로 독립경력 10년 미만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서면 평가 및 전문평가기관의 검증을 통해 선발됐다.

세대당 최대 5억원을 5년 거치 20년 원

금균등분할상환, 연리 1.5%(고정금리) 조건으로 농지, 농기계 구입, 시설·축산 분야 설치비용을 융자해 준다.

함평에서 축산업에 종사하는 박모씨는 "고금리 시대에 1%대 저리 융자로 한우 입식과 축사 개보수 공사를 추진하게 됐다"며 "후계농에 선정돼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청년후계농,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사업을 스마트 청년농업인 1만명 육성과 연계해 추진하고 있다.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유도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농가 경영주의 고령

화 추세를 완화하는 등 농업 인력 구조 개선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강하춘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많은 청년이 농촌에서 안정적으로 농업을 유지하고 체계적으로 성장하도록 진입부터 소득 창출 등 성장·정착까지 단계별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가 지난해 선발한 청년 후계농 중 607명, 일반후계농 중 141명이 지역에 정착해 이 사업이 농촌 활력 증진은 물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광주시-그린카진흥원, 미래차 생산기지 '속도'

산단·소부장특화단지 주축 전환
자율주행 부품·애프터마켓 육성

광주시와 광주그린카진흥원이 미래차 국가산단과 자율주행차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등을 통해 전기차·수소차·자율주행차·배터리 등 모빌리티 밸류체인(가치사슬)에 속도를 낸다.

4일 광주시와 (재)광주그린카진흥원은 진흥원 국제회의실에서 '공공기관 현장대화'를 진행했다. 이날 대화에는 강기정 시장이 비롯해 김덕모 광주그린카진흥원장과 직원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광주그린카진흥원은 자동차 산업분야 산학연관의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지역 자동차산업의 기술고도화와 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기 위해 지난 2010년 설립된 광주시 출연 공공기관이다.

광주그린카진흥원은 △광주 자율차부품 소부장특화단지 조성 △송암산단 도시재생 혁신지구사업 △광주 미래차국가산단 조성 등 광주시의 핵심사업 추진에 힘을 보태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 정부로부터 미래차국가산단과 자율주행차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됨에 따라 기업특전(인센티브), 연구개발(R&D)지원은 물론 글로벌 완성차·부품사들의 투자가 가시화할 전망이다.

광주그린카진흥원은 광주시와 함께 자

율주행차 부품생산을 위한 연구·실증기반을 마련하고, 차세대 모빌리티 선도기업(엔지니어링)과 부품기업 간 연결형 밸류체인(가치사슬)을 구축한다.

자동차 관련 신규 아이템을 개발할 때 지역 중소·중견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완성차 업체의 공용 플랫폼을 활용한 목적기반자동차(PBV)의 개발과 상용화를 지원, 완성차-부품업체 간 상생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광주그린카진흥원은 빛그린국가산업단지에 온오프라인 협업센터를 구축해 목적기반자동차(PBV) 및 부품 시제작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노후 산업단지인 옛 송암산단 일대를 미래차 애프터마켓 산단으로 전환하는 혁신지구 조성 사업을 추진,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나선다.

광주시는 국내에서 유일한 친환경자동차(전기차) 부품인증센터를 개소해 늘어나는 친환경자동차 인증 수요와 미래차 전환에 대응하고 있다.

강기정 시장은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이 급변하면서 광주의 자동차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광주가 미래차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그린카진흥원이 한발짝 앞서 성장동력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노병하 기자



강기정 광주시장(가운데)이 4일 광주 광산구 빛그린산단 내 광주그린카진흥원을 방문해 김덕모 원장 및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는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늘·내일 사전투표율 '축각'

■1면서 계속 이어 "이번 총선에서도 민주당 후보들의 '내로남불'은 어김없이 드러났고, 여전히 민심에 역행하고 있다"며 "공천만 받으면 곧 당선이라는 인식 때문에, 민주당의 광주·전남 경선은 고소·고발이 이어지며 온갖 비리가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보당 광주 후보자들도 이날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정부 심판과 광주의 자존심을 위해 광주 8석 중 1석은 진보당 후보를 당선시켜 달라"고 말했다.

진보당은 "이번 총선에서 민심은 이미 야권의 압승이 예견되고 있다. 이제 전국이 광주의 변화를 주목하고 있다"며 "지금 이 광주를 바꿀 절호의 기회다"고 지지를 부탁했다.

한편 지난 2013년 4월 재·보궐선거 때 처음 도입된 사전투표는 이후 점차 참여율이 상승해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36.9%의 투표율을 기록한 바 있다. 전남은 사전투표가 전국선거로 처음 도입된 2014년 6월 지방선거부터 7번에 걸친 선거에서 한 번을 제외하고 모두 17개 시·도 중 사전투표율 1위를 차지했다.

전남의 역대 총선 사전투표율은 2016년 20대 총선 18.85%, 2020년 21대 총선 35.77%로 모두 1위다. 광주의 사전투표율은 제도 도입 이후 19~20대 대선에서 각각 3위, 20~21대 총선에서 각각 4위를 기록했다

www.e-dk.co.kr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가전이 한 곳에!

공기청정살균기 | 공기청정기 | 공기순환기 | 제습기 | 레인지후드 | 전기쿡탑 제조 및 A/S 문의 1544-1154